

2024년 6월 2일. 2 June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For which I am suffering, bound with chains as a criminal. But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디모데후서 2 Timothy 2:9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달 6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로써 거룩하고 복되게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와 함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로써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 찬양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Holy Communion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 Now as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after blessing it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27 And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of it, all of you, 28 for this is my blood of the[a]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the forgiveness of sins. 29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of this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마태복음 26:26-29

우리 주님께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Acts 28:16-31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And when we came into Rome, Paul was allowed to stay by himself, with the soldier who guarded him.

Paul in Rome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After three days he called together the local leaders of the Jews, and when they had gathered, he said to them, "Brothers, though I had done nothing against our people or the customs of our fathers, yet I was delivered as a prisoner from Jerusalem into the hands of the Romans.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When they had examined me, they wished to set me at liberty, because there was no reason for the death penalty in my case.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But because the Jews objected, I was compelled to appeal to Caesar—though I had no charge to bring against my nation.

20. 이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For this reason, therefore, I have asked to see you and speak with you, since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wearing this chain."

2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And they said to him, "We have received no letters from Judea about you, and none of the brothers coming here has reported or spoken any evil about you.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But we desire to hear from you what your views are, for with regard to this sect we know that everywhere it is spoken against."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When they had appointed a day for him, they came to him at his lodging in greater numbers. From morning till evening he expounded to them, testify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trying to convince them about Jesus both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s.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And some were convinced by what he said, but others disbelieved.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And disagreeing among themselves, they departed after Paul had made one statement: "The Holy Spirit was right in saying to your fathers through Isaiah the prophet: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Go to this people, and say,
“You will indeed hear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see but never perceive.”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For this people's heart has grown dull, and with their ears they can barely hear,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that this salvation of God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they will listen.”

29. (없음).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He lived there two whole years at his own expen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him,

31. 하나니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두 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복음 전파에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영적 태도입니다.

본문을 묵상합니다.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And when we came into Rome, Paul was allowed to stay by himself, with the soldier who guarded him.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Luke)를 포함한 바울 일행이 로마(Rome)에 들어갔습니다. 로마 아피아 가도(Appian Way)를 따라 로마시내를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로마(Rome). 사도행전에서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사도행전 Acts 1:8

범위를 더 넓게 잡습니다. 적어도 누가복음-사도행전에 따르면, "땅끝"은 로마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을 연결하는 지리학적 동선(動線)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입니다.

마침 사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Now while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when his division was on duty,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he was chosen by lot to enter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누가복음 Luke 1:8-9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도 성소를 거쳐 지성소.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8장의 "로마"까지.

동선만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성령운동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자리가 로마입니다.

당시 온 세상의 꼬트머리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체는 중심)에 해당하는 로마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자의 굴"입니다. 지리학으로도, 사회-종교학으로도 그렇게 규정합니다. 물론 훗날 "요한계시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이 바울과 밀착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보호 아래 따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 받기 전, 그래서 그는 미결수였습니다.

Paul in Rome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After three days he called together the local leaders of the Jews, and when they had gathered, he said to them, "Brothers, though I had done nothing against our people or the customs of our fathers, yet I was delivered as a prisoner from Jerusalem into the hands of the Romans.

사흘이 지났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일차 선교대상으로 삼은 자들입니다. 곧 로마 황제를 만날 터였습니다.

동선이 예루살렘-로마인데, 그러면 "메시지의 흐름"을 주목해 봅시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증거"해야 할 사명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복음 증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에 온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이유도 그렇지만, 복음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는 복된 말씀입니다.

해서, 오늘,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이후 그 "첫 번째 사역"으로 "복음전파"를 시작합니다. 황제를 만나기 이전에, 벌써!

바울이 높은 유대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보인 이런 "적극적"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 도전을 크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마음대로 "회당"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초청"입니다.

갈 수 없다면, 부를 수 있다!

이 말은 반대로, "불러도 오지 않는다면 간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을 통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eventy two others and sent them on ahead of him, two by two, into every town and place where he himself was about to go. And he said to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pray earnestly to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누가복음 Luke 10:1-2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것도 복음전파에는 "핑귓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갈 수 없는 지금은 초청할 때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바울은 그들을 "형제"(andres adelpoi)로 불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도 복음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부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도 벌써 드러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따뜻한 말로 그에게로 오는 자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1.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입니다. 바울이 알고 믿고 따른 것은, 조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 곧 구약성경입니다. 바울은 그 관습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관습을 생명으로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2.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로마인에게 죄수로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관습이 지목하는 핵심자리가 예루살렘인데! 그리고 그 관습을 전통으로 받아 온 민족이 이스라엘이며 유대인인데! 거기서 유대인에게서 정죄를 당한 것입니다.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When they had examined me, they wished to set me at liberty, because there was no reason for the death penalty in my case.

1.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수 차례에 걸친 재판과 청문회를 언급합니다.

법리에 밝은 로마인이 살펴도,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없었습니다. 해서 그들은 나를 석방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바울이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사회-정치적인 가치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로마가 주목하여 처벌하던 사회-정치적인 선동가가 아닙니다. 로마인에게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입니다.

복음증거의 대상자들을 주목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그 첫 번째 선교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그 첫째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So Paul stood up, and motioning with his h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who fear God, listen!

사도행전 Acts 13:16

이제 로마에서도, 그 첫 번째 복음증거 대상을 유대인으로 삼았습니다.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यो,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But because the Jews objected, I was compelled to appeal to Caesar—though I had no charge to bring against my nation.

그런데 로마인과 달리, 유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 사회라, 어떤 신을 섬기든 문제가 없지만, 유일신교 사회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했습니다. 거기다 바울은 "성전법"도 어겼습니다.

1. 내게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길 외에.

그러나 사실, 가이사 상소는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유대인의 핍박을 이용하여 로마인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유대인의 핍박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시리아를 거쳐, 온 소아시아와 유럽에 퍼져나갔던 여태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 보십시오.

2. 그러나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는 뜻이 없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 대한 동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9-11장에 언급된 그대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중요한 가치로 지니고 있습니다.

20.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For this reason, therefore, I have asked to see you and speak with you, since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wearing this chain."

1. 이제 여러분을 청했습니다. 이 일을 이야기하려고.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죄한 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2.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 바울은, 이제 본론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의 불행 여건 중에도 나는 여러분과 대화하려고 청합니다. 그 주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2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And they said to him, "We have received no letters from Judea about you, and none of the brothers coming here has reported or spoken any evil about you.

그들의 대답입니다.

1.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어떤 소식을 들은 바 없습니다. 편지로도, 인편으로도.

이들은 아직도 바울 개인의 일에 집중합니다.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But we desire to hear from you what your views are, for with regard to this sect we know that everywhere it is spoken against."

1.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사상을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은 바울의 생각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바울이 개인의 잘못으로 죄수가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믿고 전하는 그 사상 때문일 줄 알기 때문입니다.

2. 당신이 믿는 그 파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유대인 중에서 극히 소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초대 받은 유대인들은 그 "사상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일어난 핍박 소식을 듣고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는 줄."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When they had appointed a day for him, they came to him at his lodging in greater numbers. From morning till evening he expounded to them, testify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trying to convince them about Jesus both from the Law of Moses and from the Prophets.

1.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최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남은 생명은 오직 복음증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람들이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원했던 것입니다.

2019년에 아내와 내가 로마에 갔을 때, 그 셋집을 방문했습니다. 시내 강가에 있는 어떤 자리인데, 지금은 거기 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파티 같은 것을 열 수 있었다면, 셀 수 없는 자들이 왔을 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지키는 군인의 경계근무 범위 안에 있고, 거처도 겨우 "셋집"입니다. 거기서 무슨 큰 집회가 열렸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전파의 "열정"이 컸습니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나는 이 대목에서 금문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3.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했습니다.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을 연상합니다.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And some were convinced by what he said, but others disbelieved.

1. 그 말을 믿는 사람.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수로 끌려온 자의 말을 믿다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일입니다.

2.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And disagreeing among themselves, they departed after Paul had made one statement: "The Holy Spirit was right in saying to your fathers through Isaiah the prophet:

1. 의견일치가 많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2.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맞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Go to this people, and say,
"You will indeed hear but never understand,
and you will indeed see but never perceive."

이사야가 받은 사명입니다.

1.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복음전파하던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보는데도 알지 못한다.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For this people's heart has grown dull,
and with their ears they can barely hear,
and their eyes they have closed;
lest they should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turn, and I would heal them.'

1. 왜 그런가?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지고, 귀가 둔하게 되고, 눈은 감겼기 때문이다.

이게 죄인 된 인간 본연의 속성입니다.

2.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까 하기 때문이다.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훼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교회를 거스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박해를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Therefore let it be known to you that this salvation of God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they will listen."

1. 따라서,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있다.

이 패턴은 바울의 제1-3차 선교여행 때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으리라!

로마에서 바울은 끝내 이방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And Paul and Barnabas spoke out boldly, saying,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be spoken first to you. Since you thrust it aside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ternal life, behold, we are turning to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13:46

이와 같은 선교패턴이 로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었다는 미국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오랜 세월 우상숭배에 젖어 살던 원주민에게로 우리가 갈 것입니다. 교회역사의 본고장 유럽이 세속화한다면, 오랜 고난의 땅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29. (없음).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He lived there two whole years at his own expense,[b]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him,

1.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살았습니다.

예상보다 가이사 앞에 서는 때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바울은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니다.

2.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했습니다.

다(pas). 누구든지. 예수님께서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그대로, 바울도 다 불렀고, 다 만났고, 다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아나니아(Ananias)에게 다메섹에서 주신 말씀에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But the Lord said to him, "Go, for he is a chosen instrument of mine to carry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사도행전 Acts 9:15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proclaiming the kingdom of God and teaching about the Lord Jesus Christ with all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 땅 정치의 핵심인 "로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2.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중심에 서 있는 "가이사"의 땅에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했습니다.

3. 담대하게(with all boldly).

담대하게. 담대하라! 사도행전 13:46을 다시 인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And Paul and Barnabas spoke out boldly, saying, "It was necessary that the word of God be spoken first to you. Since you thrust it aside and judge yourselves unworthy of eternal life, behold, we are turning to the Gentiles."
사도행전 Acts 13:46

여기서 "담대히 말함"이 헬라어로 파르레시아(parresia)입니다. 이것은 "거침없는 언설," 혹은 "감추지 않는 말씀"으로 번역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And he said this plainly. And Peter took him aside to rebuke him.
마가복음 Mark 8:32

여기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하신 말씀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어법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로,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증거한 것입니다.

4. 거침없이(without hindrance).

거침없이(akolutos). 아쿨루토스. 이 단어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많은 "방해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 나간 바울의 선교사명입니다. 방해공작 있어도,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입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삶의 모든 것이 다 "죽은 자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미워하나, 바울은 담대하였습니다. 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사도행전 강해를 마칩니다. 금문교회는 개척 초기에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사도행전 강해를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아멘.

기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베이지역에 우뚝 선 하나님의 교회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